

전남 명품섬 쓰레기 신음

관광객들 버리고 파도에 밀려오고
대부분 처리시설 없어 자체 소각

지난 3일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해변은 쓰레기로 넘쳐났다. 소주병, 부탄가스, 바구니, 종이박스 등 관광객들이 생각없이 버린 쓰레기와 드럼통, 스티로폼, 페어링 등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까지 뒤섞이면서 매립장을 방불케 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처리에의 지역민 탓에 지역민들이 내다버린 듯한 생활쓰레기도 널려있었고 해안가 곳곳은 쓰레기를 태워 검게 그을린 흔적으로 얼룩졌다. 절경으로 둘러싸인 신비의 섬, “다도해의 진주”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였다.

전남 섬이 “중병”을 앓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쓰레기에 섬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 등이 내다 버린 쓰레기와 바다에서 떠밀려온 해양쓰레기까지 겹치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이 훼손되는 등 골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매립시설도 없는 탓에 자체 처리하는 섬이 많아 때문지 않은 자연을 감상하기는 커

녕, 검게 그을린 불쌍사나운 풍경으로 여행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섬 지역에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시설 28개소와 소각시설 34개소 등 62개에 불과하다. 주민이 살고 있는 섬만 296개에 이르지만 규모가 다소 큰 면 단위 섬을 제외하면 처리시설이 없는데다, 섬 지역 특성상 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주민 스스로 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남 상당수 섬은 지자체별로 ‘폐기물 관리법(14조)’의 ‘생활폐기물 처리 예외지역’에 포함돼 주민이 ‘알아서’ 태우거나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도군에만 이같은 섬이 33개나 된다.

‘국립공원 1호 명품 마을’인 관매도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관매도의 경우 264명의 다소 많은 주민들이 사는데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만큼 진도군이

쓰레기차를 투입, 수거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를 감당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매도는 이달 중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준공, 가동할 예정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나머지 섬의 상황은 심각하다. 진도군 조도면의 가사도(313명), 서거면 단위 섬을 제외하면 처리시설이 없는데다, 섬 지역 특성상 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주민 스스로 해야 하는 셈이다.

해마다 엄청난 양이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도 마찬가지다. 지난 1972년 발효된 런던협약에 따라 바다쓰레기를 해양폐기물로 분류해 수거후 소각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수거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전남지역에 투입된 사업비만 76억원, 차도(137명), 대마(111명)도 등은 주민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인근 공터나 해안가 등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위한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재정 형편상 예산을 늘리기도 쉽지 않아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진도군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90억 원 환경정화사업을 투입, 조도면 18개 섬의 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이며, 여수·진도·신안 등 6곳에는 1개소당 15억원씩 국비 지원을 받아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일출 명소로 관매 8경인 진도 관매도 공돌·돌모 해안가에 바닷물에 떠밀려온 스티로폼과 어망은 물론 폐비닐, 포장박스 등 생활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다. /진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제2순환도로 협약해지 수순 돌입

광주시, 관리업체 자금 원상회복 명령 통보

광주시는 5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맥쿼리)에 자금 재조달 원상회복(감독명령)을 통보했다.

광주시는 감독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실시협약을 중도해지하고 순환도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사업자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1구간 사업시행자인 맥쿼리는 주무관청인 광주시의 동의없이 임의로 자본금을 감자한 뒤 후순위 차입금을 도입하고 주주차입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높은 이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관리업체의 자기자본 전액을 잠식하는 등 적자운영을 심화시켜왔다는 것이 광주시의 분석이다.

시는 이로 인해 제2순환도로 1구간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

고 지난달 21일 사전예고 통지에 이어 이날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맥쿼리 측은 광주시의 사전예고 통지에 대해 법률검토 및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기일 내 회신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자금 재조달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약변경을 민자사업자에게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 중도해지 절차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며 “민자사업자의 소송제기 등에 대비해 이미 구성된 ‘재정부담경감 대책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선거승리 매진”...손학규 대표 사퇴 철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5일 “사퇴할 수용 없는 당의 뜻이 넓은 책임을 지고 당과 민주진보진영 전체에 헌신을 명하는 것인 만큼 이를 무겁게 여겨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며 대표직 사퇴 의사를 철회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 후보를 배출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하루 만

이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중대한 과오에 대한 책임은 안고 가되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의 승리를 이끌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당 대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고문·중진·선배당원·의원들이 사임을 극구 만류했다”면서 “이는 서울시장 선거를 끝까지 승리시켜야 하고 남은 임기 동안 야권통합과 당의 혁신에 매진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제가 과연 막중한 소임을 계속 맡을 수 있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뜻을 뒤집는 것이 제가 가진 신념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야권 통합후보인 박원순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을 지에 대해 “저와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박 후보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 “당원이나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박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를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알림

제2회 호남 초중생 영어평가대회

접수 잇따라...28일 마감합니다

광주일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초·중학생 자녀들의 영어실력을 키우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광주일보는 한국토익위원회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영어교육학회가 후원하는 제2회 호남 초·중학생 영어학력평가대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ETS와 연계, 29년간 한국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국내 최대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토익위원회와 YBM-sisa가 시험 전과정을 총괄, 최고의 공신력있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2회 대회부터는 광주·전남 지역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이번 대회 성적우수자는 물론 1회 대회보다 성적이 크게 향상된 학생에게는 각종 상과 부상이 수여되며 해외어학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성적분석표와 전국순위, 상관관계표를 통한 TOEIC 예상점수 예측 등이 상세하게 분석돼 제공되기 때문에 향후 영어성적을 향상시키고 TOEIC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학부모, 선생님, 학원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접수일자 : 10월 4일 ~ 10월 28일
- 신청방법 :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ilbo.co.kr)
- 대상 : 광주·전남·전북 초·중학생(초1~6학년, 중1~3학년)
- 경시대회 일자 : 11월 12일(토) 오전10시
- 경시대회 장소 : 광주·전남·전북 30개 고사장 (추후통보)
- 평가 과목 및 참가비 : 초등부 - JET (22,000원)
중등부 - TOEIC bridge (29,000원)
- 특전 : 성적우수자 부상 및 해외어학연수비 지원
- 문의 : 광주일보 062-220-0555

光州日報社

Don't worry

www.aliotv.kr

Be happy

www.aliotv.kr

알리오TV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은 신개념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관련 그룹을 특별한 공간 즉, 플랫폼에 모아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의 발전을 모색하며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을 원하는 기업체들의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이를 신문지면과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소비자와 각 기업체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드리는
마케팅도우미가 되겠습니다!

ADEC

(주)아데크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무등빌딩 5층 TEL: 062-223-5111(내), FAX: 062-234-5113
서울사무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88번지 문정빌딩 701호 TEL: 02-756-6733, FAX: 02-2179-7982